

문화탐방 안내

□ Educational Visiting & Cultural Excursion

○ Educational Visiting

-일시 : 2011. 10.28(금)

-경비 : 무료

-schedule : 아래 표 참조

Time	Option 1	Option 2
13:00-13:30	이동	
13:30-14:30	광주 염주초등학교	광주 서석고등학교
14:30-15:00	이동	
15:00-16:30	시립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16:30-18:00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염주 초등학교 <http://www.yeomju.es.kr/>

서석고등학교 www.sosok.hs.kr

* 방문 학교는 해당 학교의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 <http://gwangju.museum.g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http://gjfm.gjcity.net>



죽두리

○ Cultural Visiting

-일시 : 2011. 10.29(토)

-경비 : 35,000원(35 \$)

- 교통비(버스 대여), 입장료, 점심, 생수, 간식 등 포함
- 체험프로그램 중 유료 체험은 본인 부담

-schedule : 아래 표 참조

Time	Single option
09:30-10:30	이동
10:30-12:30	낙안읍성 tour
12:30-14:30	점심 및 자유시간
14:30-16:30	체험 프로그램
16:30-18:00	이동(광주 숙소 도착)



[낙안읍성민속마을http://www.nagan.or.kr/](http://www.nagan.or.kr/)

-낙안읍성 및 낙안읍성 민속마을이란?

낙안읍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지방계획도시로서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고 낙안읍성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순천시 낙안면에 소재하며 넓은 평야지에 축조된 성곽으로 성내에는 관아와 100여 채의 전통 초가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옛 고을의 기능과 전통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서민의 모습을 통해 전통 문화를 생생히 엿볼 수 있다.

• 낙안읍성 연혁

- 마한의 옛터로서 백제때 파지성,분차,분사라고 부름
- 신라 경덕왕 16년(757)분령군으로 고쳐부름

- 고려 태조 23년(940) 낙안군(양악)으로 개칭
- 고려현종 9년(1018)에는 나주부로 소속
- 고려 명종 2년(1172)감무를 두었다가 지군으로 승격
- 조선 태조 6년(1397)왜구가 침입하자 이 고장 출신 김빈길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고 토벌함
- 조선 세조 12년(1466)군수로, 중종 10년(1515)현령으로, 명종 10년(1555)현감을 둠
- 선조 8년(1575)에 다시 낙안군으로 승격
- 조선 인조4~6년(1626~1628)임경업군수가 토성을 석성으로 중수함
- 1910년에 낙안군을 폐지 7개면이 순천군으로 편입됨 (순천군 낙안면이 됨)
- 1949년에 순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승주군 낙안면이 됨
- 1983년 6월 14일 사적 제302호로 지정
- 1984년부터 민속마을 정비복원사업 추진
- 1995년 1월1일 순천시 승주군 통합으로 순천시 낙안면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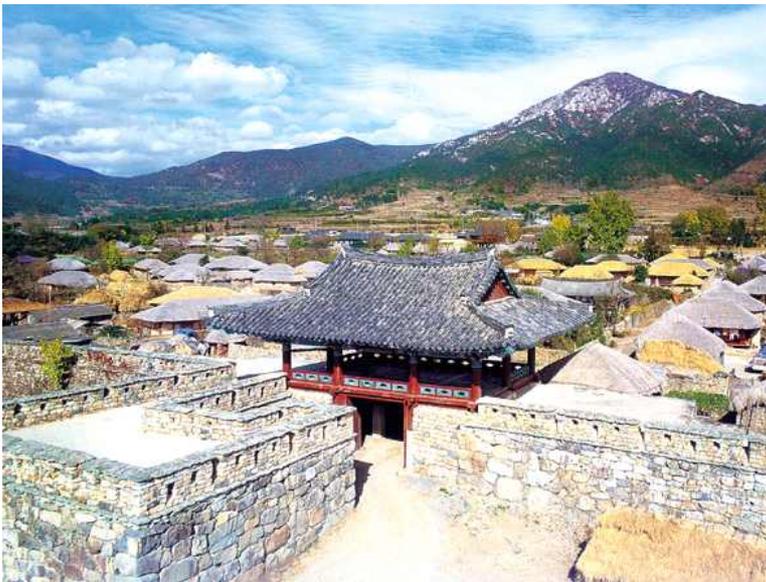
- **낙안읍성 민속마을**

- 면적 : 67,490평 (성내 41,018평,성외보호구역26,472평)
- 인구 및 가구 : 120세대(성안 82,성밖 32) 288명
- 소장문화재 : 성곽(1,410m)과 마을객사1동,임경업군수 비각1동,노거수 15주, 중요민속자료 가옥9동

• 체험프로그램 소개

공연일시	프로그램	시간	공연내용	장소	비고	참가 여부
토,일요일	가야금병창	15:30~16:30	가야금 병창 공연 가야금 연주 및 소리체험	객사	무료	
토,일요일	소달구지	09:00~18:00	소달구지 타고 사진 찍기	놀이마당	무료	
토,일요일	낙안서당	09:00~18:00	옛날 서당재현, 붓글씨 써보기 등	낙안서당	무료	
토,일요일	수문장교대식	14:00~16:00	순라, 교대, 수 위의식, 복식 체험	동헌 ~ 동문 입구	무료	
토,일요일	캐리커처	09:00~17:00	무료로 캐리커 처 해드림	낙민관	무료	
매 일	도자기 체험	10:00~17:00	접시, 컵, 토우 만들기 등	도자기체험관	유료 10,000원	
매 일	판소리	09:00~17:00	판소리(순천가, 적벽가 등) 부 르기, 우리가락 소개 판소리 따라 부르기, 북장단 쳐보기	운영장소	무료	
			황토, 감굴, 대 나무숯 염색등 각종 천연염색 : 황토염색	시연장소	유료 : 6,000원	

- * 사전예약제이므로 참가 여부난에 check
- * 현지 사정에 따라 program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낙안읍성 Naganeupseong

□ 개인 탐방 소개

—광주 「기볼만한 곳

1. 무등산 주상절리대



무등산은 산세가 웅대해 성산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 때는 무진악, 신라 때는 무악, 고려 때는 서석산, 그밖에 무정산·무당산·무덕산 등으로도 불렸다. 해발 1,187m인 무등산은 증심사, 원효사, 총장사, 의재미술관, 가사문화관 등 광주를 상징하는 문화와 예술 혼을 간직한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광주를 이야기 할 때 무등산을 빼놓고 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다. 특히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서석대와 입석대는 주상절리대로 천연기념물 465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상절리대는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냉각되면서 물리적 풍화에 의해 형성된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의 산물이다. 20m가 넘는 40여개 남짓한 돌기둥이 솟아 있는 주상절리대는 마치 그리스 신전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한반도에서 고산지대에 위치한 주상절리대는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유일하다.

2. 총장로

총장로는 한마디로 서울의 명동과 같은 곳이다. 광주가 발전해 가면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변화한 새 거리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광주를 상징하는 거리가 총장로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총장로에 상가가 형성된 것은 일제 강점기 직후인 1911년 일본인이 현 산업은행 건너편에 '염옥'이라는 상호로 일용잡화점을 낸 것이 효시다. 총장로는 차없는 거리다. 유행의 거리이며 젊음의 거리다. 총장로에는 우다방이라는 만남의 장소가 있다. 우다방은 총장로가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70, 80년대에 젊은이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던 우체국을 그 시절에 유행했던 다방을 빗대서 붙인 이름이다. 총장로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김덕령의 시호를 딴 것이다.

3. 예술의 거리



프랑스 파리에 몽빠르나스가 있다면 광주에는 예술의 거리가 있다. 몽빠르나스는 유명한 문인과 화가들이 모여 파리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곳이다.

광주 예술의 거리 또한 도심속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 인사동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의 거리로 손꼽히는 광주 예술의 거리는 광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중앙로까지 300여m에 이르는 곳을 일컫는

다. 어른 걸음으로 5분 남짓이면 걸을 수 있는 이 거리에는 갤러리와 화방, 표구점, 골동품점, 소극장, 전통찻집 등이 90여개가 모여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와 인접해 있는 이곳은 80년대 초부터 화랑을 겸한 표구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1987년 예술의 거리로 공식 지정되어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광주에 오면 꼭 들리는 명소가 되었다.

4. 국립5·18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는 남해고속도로 동광주 틀게이트에서 담양 쪽으로 4.5킬로미터쯤 가다보면 왼쪽으로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북구 운정동 산34번지 일대 5만여평에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총 3,000평으로 784기를 수용할 수 있다. 1묘역과 2묘역 일부(묘지번호 1-1부터 2-66번까지)는 80년 당시 사망자. 2묘역(2-67부터)과 3,4묘역은 80년 당시 부상 후 사망자가 안장되어 있다.

다. 묘역 중 제 10묘역은 행방불명자들의 묘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 현재 520여기가 안장되어 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수용되고 1988년 개최된 ‘광주 청문회’를 계기로 5월 항쟁의 실상이 공개된 뒤 1993년 문민정부에 의해 ‘역사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묘역조성을 발표하고, 1994년 11월 묘역조성 공사가 시작되어 1997년 5월 13일 완공되었다. 그 후 2002년 1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가 2006년 1월 ‘국립5·1 8민주묘지’로 개칭되었다.

5. 남도 향토음식 박물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광주 북구 삼각동 779의 2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남도 음식의 전시와 체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향토음식 상설전시실’은 그래픽패널, 영상물, 터치스크린, 유물 등을 통해 원시농경문화가 시작된 신석기시대부터 개화기 시대의 외국의 식생활 문화의 전래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담은 향토음식인 광양의 숯불구이, 담양의 떡

갈비, 목포의 홍어찜, 화순의 뽕잎부각, 광주의 꽃송편, 강진의 매실장아찌 등을 볼 수 있다. ‘뮤지엄샵’은 가양주, 한과, 응기, 각종그릇 등 향토음식을 진열, 판매하며 차와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또한 박물관에는 향토음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전통음식강좌도 열린다. 여기서는 폐백음식, 이바지음식, 떡과 한과, 그리고 향토음식을 배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예약하면 가능하다.

6. 잣고개 야경

잣고개는 산수동에서 총장사를 거쳐 충효동, 가사문화권, 담양 남면 방향으로 가는 무등



산 옛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고개이다. 광주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고개다. 특히 야간에 보는 시내 야경은 아름답다.

잣고개에는 광주기념물 제14호이며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포곡식 산성인 무진고성이 있다. 무진고성은 무등산의 지맥인 장원봉(해발 386m)을 중심으로 잣고개의 상태봉(해발 350m)과 제4수원지 안쪽에 축조된 장타원형상의

산성이다.

산성은 건물지와 동문지에서 기와편과 막새기, 순청자와 상감청자 등 출토된 유물들로 보아 수축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축조되었다가 9세기 중반에 폐성이 되었고, 다시 9세기 후반경에 수축되어 고려 초(12세기)까지 사용된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축성법은 백제의 축성법과 동일하지만 한편 성벽 상부를 잡석채움식으로 쌓아 흙을 판축한 백제와는 다른 방법이다. 성벽 전체를 정연하게 쌓은 고구려나 신라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백제축성법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백제식 축성법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 [광주광역시청www.gwangju.go.kr](http://www.gwangju.go.kr)
- English Web site : <http://eng.gwangju.go.kr/>